

淡味の 陰陽 특성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 ²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안진희^{1,2*}

A Study on the Yin-Yang Characteristics of Bland Taste

Ahn Jinhee^{1,2*}

¹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Yin-Yang characteristics of bland taste.

Methods : Medicinals including bland taste were searched in herbology textbooks and mainly in the *Bencaogangmu*, of which major discourse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Yin-Yang characteristics of bland taste.

Results & Conclusions : Most medicinals with bland taste were sweet-bland-cold, holding properties of cooling heat, stimulating urination and detoxification. These properties could be explained in relation to the Triple Burner's metabolism of Qi and fluids, as they stimulate perspiration and urination, improving the flow of fluids which in turn supports production of Original Qi, by working on the TB's Qi circulation system. In the bland taste discourse, it was understood that bland taste moves the Qi system and produces fluids, by first ascending then descending. Zhudanxi and the *Neijing* have opposing views on whether bland taste is Yin or Yang, but both saw blandness to have both Yin and Yang qualities. Characteristics of the bland taste could be better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Triple Burner. The phrase 'bland is attached to sweet taste[淡附于甘]' refers to the likeliness between the two tastes in that bland taste has the Central Earth qualities, integrating others and concealing itself in its blandness, its taste unspecific, mild and unstimulating thus communicating the Qi within the entire Triple Burner from Upper to Middle to Lower, as does sweet taste.

Key words : bland taste(淡味), stimulating urination(利水), discharging dampness(滲泄), *Bencaogangmu*(本草綱目), Triple Burner(三焦)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Email : jini@khu.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May 10, 2022), Revised(May 15, 2022), Accepted(May 16,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五味 가운데 하나인 淡味에 대해 『內經』에서 “淡味滲泄爲陽.”¹⁾하여 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일부 醫家들은 반대로 陰을 補한다고 보기도 하였다.²⁾ 즉,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淡味滲泄爲陽.”³⁾이라고 하여 淡味が 陽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朱丹溪는 『格致餘論·茹淡論』에서 “粳米가 달고 담담한 것은 土의 德으로 粳米는 陰에 속하여 가장 잘 補한다.”⁴⁾고 하였고, 『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에서 “옛사람들이 여름에 반드시 홀로 잠들며 담담한 음식을 먹었던 것은 아끼고 보호하는 것에 조심하고 삼갔던 것이니 金水の 두 臟을 보호하고 기르며 火土의 왕성함을 혐오했을 뿐이다.”⁵⁾라고 하여 淡味が 陰을 補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淡味の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논문에서는 淡味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五味 연구에 淡味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淡味와 관련된 기존 연구 가운데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⁶⁾에서는 淡味를 五味와 동등한 자격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淡味が 滲泄하여 津液 대사를 원활히 하면서 太陽의 氣化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정신을 맑게 만든

다고 하였고, 淡味が 甘味 또는 鹹味が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滲泄하면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어 몸을 가볍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清氣가 위로 올라와 精神을 더욱 맑게 해주기 때문에 陽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淡味が 津液 대사와 氣化의 陰陽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味에 관한 研究’⁷⁾에서는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 淡味를 甘味에 붙여서 말한 ‘淡附于甘’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黃帝內經』에 나온 五味 위주로 설명하여 淡味の 陰陽 특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고, 『黃帝內經』中 五味에 對한 考察’⁸⁾에서도 ‘淡入胃’, ‘淡味滲泄爲陽’의 『黃帝內經』 원문은 기재되어 있으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는 못했다.

한편 중국 논문 중 ‘『黃帝內經』“淡味滲泄爲陽”意涵及『傷寒論』方藥運用析義’⁹⁾에서 淡味が 淡多甘少하여 中和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體가 陰이고 用이 陽으로 기운이 상승하고 다시 하강하여 陰陽升降氣化에 작용하여 三焦 水道의 津液 氣化 작용이 있다고 하였고, 津液 대사의 과정 중에서 三焦의 氣化 가운데 滲泄의 작용은 汗液과 尿液이 생성되고 배설되는 과정으로 全身의 각 부분에서 산물을 분비하고 배설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淡味藥內涵析議及在兒科疾病中的運用’¹⁰⁾에서는 淡味の 성질이 平하여 胃氣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臟腑가 취약한 小兒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하면서 그 효능을 분석하여 小兒들의 질환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淡味の 논설을 바탕으로 淡味の 陰陽 특성을 자세히 비교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며, 그 효능을 三焦와 관련하여 살

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4.
2) 『素問·至眞要大論』에서 “五味陰陽之用何如. 岐伯曰,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4.)이라고 하였고, 『靈樞·九鍼論』에서 “五味,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甘入脾, 鹹入腎, 淡入胃, 是謂五味.”(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332.)라고 한 것으로 보아 『黃帝內經』에서 말한 五味 안에는 酸苦甘辛鹹 외에 淡味도 포함되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기에 서두에서 六味라고 하지 않고 五味라고 하였다.
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4.
4) 朱震亨 著, 毛俊同 點注, 格致餘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p.60-61. “彼粳米甘而淡者, 土之德也, 物之屬陰而最補者也.”
5) 朱震亨 著, 毛俊同 點注, 格致餘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p.2-5. “古人於夏必獨宿而淡味, 兢兢業業於愛護也, 保養金水二臟, 正嫌火土之旺爾.”
6) 백유상.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7. 20(4). pp.81-90.

7) 김형주.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味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49.
8) 문영옥. 『黃帝內經』中 五味에 對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1-44.
9) 李吉武, 陳文輝, 孟立鋒, 唐愛華, 李雙蕾. 『黃帝內經』“淡味滲泄爲陽”意涵及『傷寒論』方藥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20. 26(03). pp.296-298.
10) 潘青雲, 單韓文, 吳嘉寶, 趙霞. 淡味藥內涵析議及在兒科疾病中的運用.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21. 37(04). pp.720-723.

펴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淡味が 포함된 약물을 본초학 교과서와 『本草綱目』을 중심으로 淡味の 특성을 살펴보고, 『本草綱目』 및 논설을 중심으로 하는 『本草乘雅半偈』, 『本經疏證』, 『本草思辨錄』에 기재된 諸家の 淡味 논설을 분석함으로써 淡味の 작용을 『黃帝內經』에서 陽이라고 한 것과 후세 醫家 중 朱丹溪가 淡味が 補陰을 한다고 한 것이 진실로 淡味の 陰陽 속성이 엇갈리는 것인지, 淡味를 陰 혹은 陽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淡味の 효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淡味の 임상적 활용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論

1. 본초학 교과서와 『本草綱目』에 기재되어 있는 淡味 약물

본초학 교과서와 『本草綱目』에 기재된 약물 가운데 淡味를 지닌 약물을 살펴보면 본초학 교과서에서는 淡竹葉, 燈心草, 茯苓, 鴨跖草, 薏苡仁, 猪苓, 竹葉, 土茯苓, 通草, 滑石 등 총 10개의 약물이 있었으며, 『本草綱目』에서는 婆娑石, 白羊石, 土茯苓, 通脫木, 西瓜, 羊鬍, 象肉 등 총 7개의 약물이 있었다¹¹⁾. 土茯苓과 通草는 중복되어 종합해 보면 淡味 약물은 총 15개이었으며 각각의 氣味·歸經·效能主治·發明 등을 정리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淡竹葉

【氣味】 甘淡寒

【歸經】 心·胃·小腸經

【效能主治】 清心火, 除煩熱, 利小便. 治熱病煩渴, 小便赤澀, 淋痛, 口舌生瘡.

淡竹葉은 甘淡寒한 성질이 있어서 心胃의 熱邪로 인한 心煩口渴을 다스리고, 體가 가볍고 氣薄하여

上焦氣分の 熱邪를 다스린다. 또한 輕清之品으로 清上徹下하여 表裏관계인 心小腸의 熱邪를 清하여 心火上炎으로 인한 口舌生瘡과 心火가 小腸으로 옮겨간 小便不利, 灼熱澀痛을 다스린다.¹²⁾

본초학 교과서에서 淡竹葉을 설명함에 氣薄하다고 한 것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心火를 小便으로 빼내어 결과적으로 열을 내리는 것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2) 燈心草

【氣味】 甘淡微寒

【歸經】 心·肺·小腸經

【效能主治】 清心火, 利小便. 治心煩失眠, 尿少澀痛, 口舌生瘡.

燈心草는 甘淡微寒하며 주로 心經에 들어간다. 淡滲利濕, 泄熱의 효능이 있어 心經의 熱을 끌고 下行케 하여 小便을 따라 배출케 한다. 熱病으로 小便이 赤澀하고 熱痛하며, 心火가 亢盛하여 煩躁不安한 證에 많이 응용한다.¹³⁾

본초학 교과서에서 燈心草를 설명함에 淡滲利濕하다고 한 것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滲泄하는 작용으로 心火를 小便으로 빼내어 결과적으로 열을 내리고 不眠과 小便不利를 치료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3) 白羊石

【氣味】 淡, 生涼熱熱, 無毒

【歸經】 기재되어 있지 않음

【效能主治】 解藥毒. 黑羊石同(蘇頌).¹⁴⁾

白羊石은 淡味를 지니고 있고, 익혔을 때는 熱하지만, 익히기 전에는 涼한 성질이 있고 無毒하여 藥毒을 푸는 것이 黑羊石과 같다고 하였다.

11) 『本草綱目』에 기재된 淡味 관련 7개의 약물은 諸家の 論설에서 淡이라고 한 것은 제외하고, 氣味 설명의 맨 앞에 기재된 것 중 味가 확실하게 淡이라고 표기된 것만을 선택하였음을 밝혀 둔다.

12)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211-212.

13)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367-368.

14)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431.

4) 茯苓

【氣味】 甘淡平

【歸經】 心·肺·脾·腎經

【效能主治】 利水滲濕, 健脾寧心. 治水腫尿少, 痰飲眩悸, 脾虛食少, 便溏泄瀉, 心神不安, 驚悸失眠.

茯苓은 甘淡平한데, 甘味는 補하고 淡味는 滲하며, 藥性이 和緩하여 利水하되 氣를 소모하지 않아 利水滲濕의 要藥이다. 小便不利, 水腫脹滿, 痰飲內停證에 寒熱虛實을 막론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¹⁵⁾

본초학 교과서에서 茯苓을 설명함에 淡味는 滲하며, 약성이 和緩하여 利水滲濕의 요약이라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利水滲濕하는 작용으로 小別不利와 痰飲內停을 치료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5) 象肉

【氣味】 苦淡平, 無毒

【歸經】 기재되어 있지 않음

【效能主治】 燒灰, 和油塗瘡. 多食, 令人體重(『開寶』)

【發明】 時珍曰: 按『呂氏春秋』云: 肉之美者, 旄象之約. 又『爾雅翼』云: 象肉肥腴, 少類豬肉, 味淡而含滑. 則其通小便者, 亦淡滲滑竅之義. 燒之則從火化, 故又能縮小便也.¹⁶⁾

象肉은 苦淡平하고 無毒하여 불에 태워서 그 재를 기름에 개어서 禿瘡에 발라주고, 많이 먹으면 몸을 무겁게 한다고 했다. 發明에서는 淡滑하니 小便을 통하게 하는 것은 또한 淡滲하여 九竅를 滑利하게 하는 뜻이라고 하였다.

6) 西瓜瓢

【氣味】 甘淡寒, 無毒

【歸經】 기재되어 있지 않음

【效能主治】 消煩止渴, 解暑熱(吳瑞). 療喉痺(汪穎). 寬中下氣, 利小水, 治血痢, 解酒毒(寧原). 含汁, 治口瘡(震亨).

15) 전국한의학대학교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345-347.

16)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1851-1853.

【發明】 穎曰: 西瓜性寒解熱, 有天生白虎湯之號. 然亦不宜多食. 時珍曰: 西瓜, 甜瓜皆屬生冷. 世俗以爲醍醐灌頂, 甘露灑心, 取其一時之快, 不知其傷脾助濕之害也. 『眞西山衛生歌』云: 「瓜桃生冷宜少食, 免致秋來成瘡痢。」是矣. 又李鵬飛『延壽書』云: 防州太守陳逢原, 避暑食瓜過多, 至秋忽腰腿痛, 不能舉動. 遇商助治療之, 乃愈. 此皆食瓜之患也, 故集書於此, 以爲鑒戒云. 又洪忠宣『松漠紀聞』言: 有人苦目病. 或令以西瓜切片曝乾, 日日服之, 遂愈. 由其性冷降火故也.¹⁷⁾

西瓜는 甘淡寒하고 無毒하여 煩渴을 없애고, 暑熱을 풀어주며, 喉痺를 치료하고, 寬中下氣하며, 利水하여 血痢를 다스리고, 酒毒을 풀어주며, 口に 더금고 있으면 口瘡를 다스린다. 發明에서는 西瓜가 하늘이 내린 白虎湯의 淸호가 있고, 生冷하므로 傷脾助濕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더위를 피하기 위해 너무 많이 먹으면 가을에 이르러 갑자기 腰腿痛을 앓아 거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

7) 鴨跖草

【氣味】 甘淡寒

【歸經】 肺·胃·小腸·膀胱經

【效能主治】 清熱解毒, 利水消腫. 治風熱感冒, 高熱不退, 咽喉腫痛, 水腫尿少, 熱淋澀痛, 癰腫疔毒.

鴨跖草는 甘淡寒하여 風熱感冒로 高熱이 물러나지 않는 증상과 咽喉腫痛을 淸熱解毒하여 다스리고, 水腫尿少와 熱淋澀痛과 癰腫疔毒을 利水消腫하여 다스린다.¹⁸⁾

본초학 교과서에서 鴨跖草를 설명함에 그 氣味가 甘淡寒하다고 한 것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滲泄하는 작용으로 利水가 되어 水腫尿少와 熱淋澀痛을 다스린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8) 羊鬍¹⁹⁾

【氣味】 甘淡溫, 無毒

17)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1264-1265.

18) 전국한의학대학교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731.

19) 鬍 표제어 바로 다음에 '卽會咽也'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羊의 목구멍 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歸經】 기재되어 있지 않음

【效能主治】 氣瘦(時珍)

【發明】 時珍曰：按古方治瘦多用豬、羊鬻，亦述類之義，故王荊公『瘦詩』有「內療煩羊鬻」之句。然瘦有五：氣、血、肉、筋、石也。夫鬻屬肺，肺司氣，故氣瘦之證，服之或效。他瘦恐亦少力。²⁰⁾

羊鬻은 甘淡溫하고 無毒하여 氣瘦을 다스린다. 發明에서 李時珍은 鬻이 肺에 속하고, 肺는 氣를 주관하므로 氣瘦의 證에 羊鬻을 복용하면 好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9) 薏苡仁

【氣味】 甘淡凉

【歸經】 脾·胃·肺經

【效能主治】 健脾滲濕，除痺止瀉，清熱排膿。治水腫，脚氣，小便不利，濕痺拘攣，脾虛泄瀉，肺癰，腸癰，扁平疣。

薏苡仁은 甘淡凉하여 健脾滲濕하며 凉하여 胃를 상하지 않게 하며, 脾를 補하되 滋膩하지 않는다. 약성이 和緩하여 清補利濕하므로 脾虛濕勝으로 인한 水腫, 脚氣, 淋濁, 泄瀉, 帶下 및 濕溫初期에 상용한다. 또한 祛濕除痺하고 舒筋脈하므로 濕痺拘攣, 屈伸不利에 사용하고, 위로는 清肺熱하고 아래로는 腸胃의 濕을 제거하여 清熱排膿의 效능이 있어 肺癰과 腸癰의 치료에 상용한다.²¹⁾

본초학 교과서에서 薏苡仁을 설명함에 滲濕하고, 약성이 和緩하여 清補利濕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利水滲濕하는 작용으로 小別不利와 脚氣水腫을 치료하는 것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10) 猪苓

【氣味】 甘淡平

【歸經】 腎·膀胱經

【效能主治】 利水滲濕。治小便不利，水腫，泄瀉，淋濁，帶下。

猪苓은 甘淡平하여 滲泄하고 利水시키는 效능이

茯苓보다 우수하여 水濕停滯로 인한 小便不利, 水腫, 淋病을 치료하는데 상용한다.²²⁾

본초학 교과서에서 猪苓을 설명함에 滲泄하고 利水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利水滲濕하는 작용으로 小便不利와 水腫泄瀉를 치료하는 것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11) 竹葉

【氣味】 辛苦寒(一云 甘淡)

【歸經】 心·肺·胃經

【效能主治】 清熱除煩，生津利尿。治熱病煩渴，小兒驚癇，咳逆吐衄，面赤，小便短赤，口糜舌瘡。

竹葉은 辛苦寒하고 心肺胃 三經에 들어가 苦寒은 心肺의 熱을 清하여 煩渴症을 치료하고, 辛寒은 上焦의 風熱을 散한다. 아울러 心經의 火를 이끌어 小便을 잘보게 하므로 小便短赤澀痛하고 口舌生瘡 등의 證을 치료하여 清上導下의 效능이 있기 때문에 清利의 良品이 된다.²³⁾

본초학 교과서에서 竹葉은 그 氣味를 辛苦寒하다고 본 판본이 있고, 甘淡寒하다고 본 판본이 있는데, 竹葉을 설명함에 小便을 잘 보게 하므로 小便短赤澀痛을 치료하여 清上導下의 效능이 있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다.

12) 土茯苓(중복)

【氣味】 甘淡平

【歸經】 肝·胃經

【效能主治】 除濕，解毒，通利關節。治濕熱淋濁，帶下，癰腫，瘰癧，疥癬，梅毒 및 水銀中毒으로 인한 肢體拘攣，筋骨疼痛。

土茯苓은 甘淡平하여 利濕導熱하는 가운데 解毒시키는 特點이 있어 梅毒을 치료하는 要藥이 된다. 또한 능히 關節을 利하고 輕粉과 水銀毒을 解毒시키므로 梅毒을 치료하기 위한 水銀劑를 복용하여 나타나는 肢體拘攣者에게 더욱 양효한 효과가 있다.²⁴⁾

20)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1801.

21) 전국한외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349-351.

22) 전국한외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347-348.

23) 전국한외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206-207.

24) 전국한외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본초학 교과서에서 土茯苓을 설명함에 利濕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利濕하는 작용으로 濕熱淋濁을 치료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氣味】 甘淡平, 無毒

【歸經】 기재되어 있지 않음

【效能主治】 食之當穀不飢, 調中止泄, 健行不腫(藏器). 健脾胃, 強筋骨, 祛風濕, 利關節, 止泄瀉, 治拘攣骨痛, 惡瘡癰腫. 解汞粉、銀朱毒(時珍).

【發明】 機曰: …中略… 土萆薢甘淡而平, 能去脾濕, 濕去則營衛從而筋脈柔, 肌肉實而拘攣癰漏愈矣. 初病服之不效者, 火盛而濕未郁也. 此藥長于去濕, 不能去熱, 病久則熱衰氣耗而濕郁爲多故也. 時珍曰: …中略… 惟土茯苓氣平味甘而淡, 爲陽明本藥. 能健脾胃, 去風濕. 脾胃健則營衛從, 風濕去則筋骨利, 故諸證多愈, 此亦得古人未言之妙也.²⁵⁾

土茯苓은 甘淡平하여 이를 먹으면 不飢하고, 中氣를 조절하여 설사를 그치게 하며, 脾胃를 튼튼히 하고 筋骨을 강화시키며 風濕을 없애어 關節을 활리하게 하고 泄瀉를 그치게 한다. 李時珍은 發明에서 土茯苓에 대해 甘淡平하므로 陽明의 本藥이 되어 健脾胃祛風濕하는데, 脾胃가 세워지면 後天之氣가 잘 생성되어 營衛가 따르고, 脾胃가 세워져 土氣가 충실하면 風濕이 제거됨에 따라 筋骨이 활리해져 여러 病證이 대부분 낮게 된다고 보았다.

13) 通草(=通脫木, 중목)

【氣味】 甘淡微寒

【歸經】 肺·胃經

【效能主治】 清熱利尿, 通氣下乳. 治濕熱尿赤, 淋病澁痛, 水腫尿少, 乳汁不下.

通草는 甘淡微寒한데, 淡味는 滲濕하여 清降하는 효능이 있어 肺經에 들어가 水道를 通調하고 熱을 끌고 下行하여 小便을 잘 나가게 하며, 胃經에 들어가 通氣上達하여 乳汁을 下行하게 한다. 오직 通利하되 陰液을 손상하지 않으므로 濕熱로 인한 輕證에

서울. 永林社. 2017. pp.269-270.

25)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882-883.

마땅하다.²⁶⁾

본초학 교과서에서 通草를 설명함에 淡味는 滲濕하여 清降하는 효능이 있어 肺經에 들어가 水道를 通調하고 熱을 끌고 下行하여 小便을 잘 나가게 하며, 胃經에 들어가 通氣上達하여 乳汁을 下行하게 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利水滲濕하는 작용으로 濕熱尿赤과 淋病澁痛을 치료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氣味】 甘淡寒, 無毒

【歸經】 기재되어 있지 않음

【效能主治】 利陰竅, 治五淋, 除水腫癰閉, 瀉肺(李杲). 解諸毒蟲痛(蘇頌). 明目退熱, 下乳催生(汪機).

【發明】 杲曰: 通草瀉肺利小便, 甘平以緩陰血也. 與燈草同功. 宜生用之.

時珍曰: 通草色白而氣寒, 味淡而體輕, 故入太陰肺經, 引熱下降而利小便, 入陽明胃經, 通氣上達而下乳汁. 其氣寒, 降也. 其味淡, 升也.²⁷⁾

『本草綱目』에서는 通草가 通脫木으로 되어 있는데, 甘淡寒하여 利陰竅함으로써 五淋을 다스리고, 水腫癰閉를 없애며, 瀉肺, 解毒, 明目退熱, 下乳催生한다고 했다. 發明에서는 특히 李時珍이 通草의 색이 하얗고 氣가 寒하며, 味가 담담하고 體가 가벼우므로 太陰肺經에 들어가 열을 인도하여 하강시켜 利小便하고, 陽明胃經에 들어가 通氣시켜 上達하여서 乳汁을 내린다고 했다. 그 氣가 찬 것은 하강시키고, 그 味가 담담한 것은 상승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는 淡味の 滲泄하는 작용이 먼저 上升시켜서 上焦에 작용한 뒤에 그 반작용으로 下降하여 利小便하게 되고, 三焦의 氣화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4) 婆娑石

【氣味】 甘淡寒, 無毒

【歸經】 기재되어 있지 않음

【效能主治】 解一切藥毒, 瘡疫熱悶頭痛(『開寶』).²⁸⁾

26) 전국한의학대학교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358-359

27)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897-898.

28)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婆娑石은 甘淡寒하고 無毒하여 一切의 藥毒을 풀어서 瘴疫熱悶頭痛을 치료한다.

15) 滑石

【氣味】 甘淡寒

【歸經】 膀胱·肺·胃經

【效能主治】 利水通淋, 清熱解暑, 祛濕斂瘡. 治熱淋, 石淋, 尿熱澀痛, 暑濕煩渴, 濕熱水瀉. 外治濕疹, 濕瘡, 痲子.

滑石은 甘淡寒하고 質이 重하면서 滑하다. 淡은

滲濕하고, 寒은 清熱하며, 滑은 利竅하고, 重은 清降하므로, 利水滲濕과 清熱解暑의 效능이 있어 暑月에 上용할 수 있다. 寒滑한 藥性은 清解하며 利濕하므로 暑熱로 인한 煩渴과 濕蘊으로 인한 胸悶 등 證을 치료하고, 暑濕으로 된 泄瀉에 더욱 좋다.²⁹⁾

본초학 교과서에서 滑石을 설명함에 淡은 滲濕하다고 한 것과 利水滲濕의 效능이 있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며, 淡味の 利水滲濕하는 작용으로 각종 淋證과 尿熱澀痛을 치료한다고 한 부분이 淡味와 관련될 수 있다.

표 1. 淡味 藥물의 氣味, 歸經, 效能主治

藥物	氣	味	歸經	效能主治
淡竹葉	寒	甘淡	心胃小腸	清心火, 除煩熱, 利小便 治熱病煩渴, 小便赤澀, 淋痛, 口舌生瘡.
燈心草	微寒	甘淡	心肺小腸	清心火, 利小便 治心煩失眠, 尿少澀痛, 口舌生瘡.
白玉石	生涼 熟熱	淡	없음	解藥毒. 黑羊石同.
茯苓	平	甘淡	心肺脾胃	利水滲濕, 健脾寧心 治水腫尿少, 痰飲眩悸, 脾虛食少, 便溏泄瀉, 心神不安, 驚悸失眠.
象肉	平	苦淡	없음	燒灰, 和油塗疥瘡. 多食, 令人體重
西瓜瓢	寒	甘淡	없음	消煩止渴, 解暑熱, 療喉痺, 寬中下氣, 利小水, 解酒毒. 含汁, 治口瘡.
鴨跖草	寒	甘淡	肺胃 小腸膀胱	清熱解毒, 利水消腫. 治風熱感冒, 高熱不退, 咽喉腫痛, 水腫尿少, 熱淋澀痛, 癰腫疔毒.
羊鬍	溫	甘淡	없음	治氣癰
薏苡仁	涼	甘淡	脾胃肺	健脾滲濕, 除痺止瀉, 清熱排膿. 治水腫, 腳氣, 小便不利, 濕痺拘攣, 脾虛泄瀉, 肺癰, 腸癰, 扁平疣.
豬苓	平	甘淡	腎膀胱	利水滲濕. 治小便不利, 水腫, 泄瀉, 淋濁, 帶下.
竹葉	平	辛苦 (一云甘淡)	心肺胃	清熱除煩, 生津利尿. 治熱病煩渴, 小兒驚癇, 咳逆吐衄, 面赤, 小便短赤, 口糜舌瘡.
土茯苓	平	甘淡	肝胃	除濕, 解毒, 通利關節. 治濕熱淋濁, 帶下, 癰腫, 瘰癧, 疥癬, 肢體拘攣(梅毒·水銀中毒), 筋骨疼痛.
	平	甘淡	없음	食之當穀不飢, 調中止泄, 健行不睡. 健脾胃, 強筋骨, 祛風濕, 利關節, 止泄瀉, 治拘攣骨痛, 惡瘡癰腫. 解汞粉, 銀朱毒.
通草	微寒	甘淡	肺胃	清熱利尿, 通氣下乳. 治濕熱尿赤, 淋病澀痛, 水腫尿少, 乳汁不下.
	寒	甘淡	없음	利陰竅, 治五淋, 除水腫癰閉, 瀉肺. 解諸毒蟲痛. 明目退熱, 下乳催生
婆娑石	寒	甘淡	없음	解一切藥毒, 瘴疫熱悶頭痛.
滑石	寒	甘淡	膀胱肺胃	利水通淋, 清熱解暑, 祛濕斂瘡. 治熱淋, 石淋, 尿熱澀痛, 暑濕煩渴, 濕熱水瀉. 外治濕疹, 濕瘡, 痲子.

29) 전국한의학대학교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357-358.

2. 여러 本草書³⁰⁾에 기재된 淡味 관련 논설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經疏證』, 『本草思辨錄』 등에 기재된 淡味 관련 논설을 통해 淡味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本草綱目』에 기재된 淡味 관련 논설

(1) 『本草綱目·通劑』

“時珍이 말하기를, 滯는 머물러 정체된 것이다. 濕熱의 邪氣가 氣分에 정체되어서 아프거나 저리거나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거나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마땅히 淡味를 지닌 藥으로 위로 肺氣의 하강을 도와서 그 소변을 통하게 하고, 氣 속의 정체된 것을 쏘아내야 하니, 木通이나 猪苓의 부류가 이것이다. 濕熱의 邪氣가 血分에 머물러서 저리거나 아프거나 붓거나 돌아다니는 것이 나타나고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苦寒한 藥으로 아래로 끌어내려서 대소변을 통하게 하여 血 속의 정체된 것을 쏘아내야 하니, 防己와 같은 부류가 이것이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味が 얇은 경우에는 통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淡味를 지닌 藥을 通劑라고 일컫는다.”³¹⁾

『本草綱目』의 앞부분에 本草 이론과 관련된 논설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十劑에 대한 설명 중 通劑에 淡味와 관련된 논설이 보인다. 이는 淡味の 味가 薄하여 통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李時珍은 濕熱의 邪氣가 氣分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血分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氣味를 구분하여 사용했다. 濕熱邪가 氣分에 있어서 통증과 저림과 癃閉가 나타나면 淡味藥을 쓰라고 했는데, 淡味藥을 쓰는 목적은 肅降의 작용을 하는 肺氣의 하강을 도와 小便을 통하게 함으로써 氣 속의 정체된 것을 쏘아내려고 함이다. 반면에 濕熱邪가 血分에 있어서 저리고 아

프며 붓고 돌아다니는 것이 나타나며 대소변이 통하지 않으면 防己와 같은 苦寒한 藥을 써서 대소변을 통하게 함으로써 血 속의 정체된 것을 쏘아낸다고 했다. 또한 『內經』을 인용하여 味가 薄한 경우에 통하게 하므로, 淡味藥을 通劑라고 한다고 했다. 味가 薄하면 통하게 한다는 것은 味가 厚하면 滯하게 한다는 것과 대비가 되는데, 淡味藥이 滲泄의 작용으로 상승한 뒤에 하강하여 氣分의 停滯를 가볍게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苦味藥은 淡味藥에 비해 그 味가 厚하므로 滯하지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下焦에 작용하여 滯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本草綱目·氣味陰陽』

“『陰陽應象論』에서 말하기를, …中略…, 味が 厚한 경우에는 陰이 되고, 味が 薄한 경우에는 陰中之陽이 되며, 氣가 厚하면 陽이 되고, 氣가 薄하면 陽中之陰이 된다. 味が 厚하면 滯하게 하고, 味が 薄하면 통하게 하며, 氣가 薄하면 發泄하게 하고, 氣가 厚하면 열이 나게 한다. 辛味와 甘味는 發散시켜서 陽이 되고, 酸味와 苦味는 涌泄시켜서 陰이 되며, 鹹味는 涌泄시켜서 陰이 되고, 淡味는 滲泄시켜서 陽이 된다. 여섯 가지는 혹 수렴하거나 혹 발산하거나 혹 완만하게 하거나 혹 급하게 하거나 혹 촉촉하게 하거나 혹 건조하게 하거나 혹 부드럽게 하거나 혹 단단하게 하여 이로운 것으로써 실행하여 그 氣를 조화롭게 하여 화평하게 한다. …中略…, 李杲가 말하기를, …中略…, 氣가 薄한 경우는 滲泄하는데, 甘淡平涼한 것이 이것이다. 滲은 조금 땀을 내는 것을 일컫고, 泄은 利小便을 일컫는다. …中略…, 味는 땅을 본뜬으니, 辛味와 甘味와 淡味는 地의 陽이고, 酸味와 苦味와 鹹味는 地의 陰이다.”³²⁾

『本草綱目·氣味陰陽』에서도 淡味에 관련된 논설을 살펴볼 수가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을 바탕

30) 여러 本草書라 함은 『神農本草經』, 『名醫別錄』의 부류가 아니고,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經疏證』, 『本草思辨錄』과 같이 논설 위주로 된 本草書들을 말한다.

31)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47. “時珍曰滯, 留滯也. 濕熱之邪留於氣分, 而爲痛痺癃閉者, 宜淡味之藥, 上助肺氣下降, 通其小便, 而泄氣中之滯, 木通、猪苓之類是也. 濕熱之邪留於血分, 而爲痺痛腫注、二便不通者, 宜苦寒之藥下引, 通其前後, 而泄血中之滯, 防己之類是也. 『經』曰味薄者通, 故淡味之藥謂之通劑.”

32)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52-53. “『陰陽應象論』曰…中略…, 味厚者爲陰, 薄者爲陰中之陽, 氣厚者爲陽, 薄者爲陽中之陰.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 六者或收或散, 或緩或急, 或潤或燥, 或軟或堅, 以所利而行之, 調其氣, 使之平也. …中略…, 杲曰…中略…, 氣之薄者滲泄, 甘、淡、平、涼是也. 滲謂小汗, 泄謂利小便也. …中略…, 味象地, 辛、甘、淡者, 地之陽, 酸、苦、鹹者, 地之陰.”

으로 氣와 味の 陰陽 속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淡味는 味の 厚薄 중에서 淡薄함에 속하므로 陰中之陽이 되고, 통하게 하는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李杲의 논설에서는 氣가 薄한 경우 滲泄하고, 甘淡平涼이 이것으로 滲은 조금 땀 내는 것을, 泄은 利小便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의 氣가 薄하면 發泄한다는 내용을 滲泄로 바꿔서 설명한 것으로 추측되며, 淡味는 味薄하기도 하지만, 淡味를 지닌 약물은 대체로 그 氣도 薄한 편에 속하므로 滲泄한다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滲泄에서 滲은 小發汗이므로 肺의 宣發 작용을 통해서 皮膚를 통해 땀이 나게 하는 것을 말하며, 泄은 利小便으로 肺가 宣發했다가 肅降하면서 通調水道하여 利小便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氣와 味 중에서 味는 땅을 본떠서 기본적으로 陰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味 중에서 辛甘淡味를 땅의 陽이라고 하였고, 酸苦鹹味를 땅의 陰이라고 하여 陰陽을 구분한 것은 辛甘이 發散 작용을 하고 淡味が 滲泄 작용을 하므로 陽이라고 한 것이고, 酸味와 苦味와 鹹味는 모두 涌泄하는 작용을 하므로 陰이라고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淡味는 氣味 중에서 味이므로 땅을 본떠서 陰에 속하지만, 그 작용은 滲泄하여 上焦 쪽으로는 發汗시키고, 下焦 쪽으로는 利小便하여 전체 氣機를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땅의 陽이라고 하여 淡味が 陰과 陽의 속성을 모두 지닐 수 있음을 말하였다.

(3) 『本草綱目·五臟五味補瀉』

“張元素가 말하기를, 무릇 藥의 五味는 五臟이 들어가는 곳을 따라서 補瀉를 하고, 또한 그 성질에 기인하여서 조절하는 데에 불과하다. 酸味는 肝으로 들어가고, 苦味는 心으로 들어가며, 甘味는 脾로 들어가고, 辛味는 肺로 들어가며, 鹹味는 腎으로 들어간다. 辛味는 發汗를 주관하고, 酸味는 수렴을 주관하며, 甘味는 이완을 주관하고, 苦味는 견고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며, 鹹味는 부드럽게 하는 것을 주관한다. 辛味는 능히 맺힌 것을 풀고 건조한 것을 적셔줄 수가 있으며 진액을 이르게 하고 氣를 통하게 한다. 酸味는 능히 이완되는 것을 수렴하고 흠어지는 것을 거둘 수가 있으며, 甘味는 능히 습한 것을 이완시키며 中氣를 조절할 수가

있고, 苦味는 능히 습한 것을 건조하게 하고 부드러운 것을 단단하게 할 수가 있으며, 鹹味는 능히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 淡味는 능히 九竅를 활리하게 할 수가 있다. 李時珍이 말하기를, 甘味는 이완시키고, 酸味는 수렴하며, 苦味는 건조하게 하고, 辛味는 발산시키며, 鹹味는 부드럽게 하고, 淡味는 스미게 하니, 五味의 본성은 하나로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다.”³³⁾

『本草綱目·五臟五味補瀉』 중 張元素와 李時珍의 논설에서 淡味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張元素의 논설에서는 淡味が 利竅, 즉 九竅를 滑利하게 할 수가 있다고 했고, 李時珍의 논설에서는 淡滲하다고 했는데, 淡滲의 滲은 滲泄을 줄여서 기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五味의 설명에서 甘緩, 酸收, 苦燥, 辛散, 鹹軟이라고 두 글자씩 맞췄으므로 淡味도 淡滲泄이라고 하지 않고 淡滲으로 했지만, 滲에는 滲泄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淡味が 利竅할 수 있고, 淡味が 스미게 한다는 효능은 『素問·至真要大論』에서 “淡味滲泄爲陽”³⁴⁾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淡味는 上焦 쪽으로는 發汗시키고, 下焦 쪽으로는 利小便시켜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상쾌해져 보고 듣는 감각이 滑利해질 수 있으며, 利小便은 下竅를 滑利하게 하는 것이다.

(4) 『本草綱目·張子和汗吐下三法』

“『素問』 한 책에서 말하기를, ‘辛味와 甘味는 發散시키고, 淡味는 滲泄시켜서 陽이 된다.’고 했고, ‘酸味와 苦味와 鹹味는 涌泄시켜서 陰이 된다.’고 했다. 發散은 汗法에 귀속이 되고, 涌은 吐法에 귀속이 되며, 泄은 下法에 귀속이 된다. 滲은 解表가 되니 汗法과 같고, 泄은 利小便이 되어 下法과 같다. 유달리 補法은 말하

33)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59. “張元素曰凡藥之五味, 隨五臟所入而爲補瀉, 亦不過因其性而調之. 酸入肝, 苦入心, 甘入脾, 辛入肺, 鹹入腎. 辛主散, 酸主收, 甘主緩, 苦主堅, 鹹主軟. 辛能散結潤燥, 致津液, 通氣, 酸能收緩斂散, 甘能緩急調中, 苦能燥濕堅軟, 鹹能軟堅, 淡能利竅. 李時珍曰, 甘緩, 酸收, 苦燥, 辛散, 鹹軟, 淡滲, 五味之本性, 一定而不變者也.”

3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4.

지 않았다.”³⁵⁾

『本草綱目·張子和汗吐下三法』에서는 張子和의 汗吐下三法을 인용하여 淡味에 대해 설명했다. 辛甘의 發散 작용은 陽이 되고, 汗吐下 三法 중에서 汗法에 귀속되며, 淡味の 滲泄 작용은 陽이 되고, 汗吐下 三法 중에서 滲은 解表가 되어 汗法과 같고, 泄은 利小便이 되어 下法과 같다고 했다. 酸味·苦味·鹹味는 涌泄하여 陰이 되는데, 涌은 汗吐下 三法 중 吐法에 귀속하며, 泄은 下法에 귀속한다고 하였다. 이는 淡味の 滲泄하는 작용이 發汗과 利小便을 통한 氣機의 소통으로 陰陽의 속성 중에서 陽에 속함을 말한다.

(5) 『本草綱目·滑石·發明』

“時珍이 말하기를, 滑石이 九竅를 滑利하게 하는 것은 다만 소변만 滑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위로는 皮毛와 腠理의 구멍을 활리하게 할 수가 있고, 아래로는 精과 소변의 구멍을 활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달고 담당한 맛은 먼저 胃로 들어가서 經絡으로 스며 달려가 津氣를 넘치게 하여 위로는 肺에 수송하고 아래로는 膀胱을 통하게 하며, 肺는 皮毛를 주관하여 水의 上源이 되고, 膀胱은 津液을 주관하니, 氣化하면 능히 내보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滑石은 위로 능히 發表할 수가 있고, 아래로 水道를 滑利하게 하여 熱을 탕척하고 濕을 말리는 약제가 된다. 發表는 上焦와 中焦의 熱을 탕척시키는 것이고, 利水道는 中焦와 下焦의 熱을 탕척시키는 것이다. 發表는 上焦와 中焦의 濕을 말리는 것이고, 利水道는 中焦와 下焦의 濕을 말리는 것이다. 熱이 흩어지면 三焦가 안냉하고 表裏가 조화로우며, 濕이 없어지면 關門이 통하면서 陰陽이 이롭게 된다. 劉河間이 益元散을 써서 表裏와 上下의 여러 병을 통틀어 치료한 것은 대체로 이 뜻이고, 다만 아직 퍼서 내지 않았을 뿐이다.”³⁶⁾

『本草綱目·滑石·發明』에서 淡味와 관련된 부분은 滑石이 利竅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는데, 이 작용이 利小便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上下左右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위로 皮毛와 腠理의 구멍을 滑利하게 한다는 것은 五臟 중 肺와 관련이 있으며, 아래로 精과 小便의 구멍을 滑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腎 및 膀胱과 관련이 있다. 發表와 利水를 통해 上下焦의 濕熱을 없애고, 熱을 흩어 三焦를 편안하게 하며 濕을 제거하여 陰陽이 滑利해지게 하는데, 益元散을 그 예시로 들었다. 이 논설을 통해 淡味が 上下로 發表하고 利水하여 三焦가 편안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本草綱目·知母·發明』

“李杲가 말하기를, 知母는 足陽明과 手太陰으로 들어간다. 그 쓰임은 네 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腎火를 瀉하고, 땀이 나는 骨蒸을 치료하며, 虛勞의 熱을 그치게 하고, 化生에 근원이 되는 陰을 불러나게 한다. 張仲景은 이것을 써서 白虎湯에 들어가게 하여 잠을 잘 수가 없고, 煩躁한 것을 다스렸다. 煩은 肺에서 나오니, 躁는 腎에서 나오니, 石膏를 君藥으로 하고, 知母의 苦寒함으로 佐藥을 삼아 腎의 근원을 맑게 하며, 甘草와 粳米로 완만하게 해서 빨리 내려가지 않게 한다. 또한 무릇 소변보는 데에 병이 들어서 막혀서 갈증이 있는 것은 熱이 上焦의 氣분에 있어 肺 속의 伏熱이 능히 水를 생하게 할 수가 없고, 膀胱이 그 化生の 근원을 끊었기 때문이니, 마땅히 氣가 薄하고 味도 薄한 淡溼한 藥을 써서 肺火를 瀉하고 肺金을 맑게 하여 水가 化生하는 根源을 불러나게 해야 한다. 만약 熱이 下焦의 血분에 있으면서 갈증이 나지 않는 경우는 곧 眞水가 부족하고, 膀胱이 말라버린 것이니, 곧 陰이 없으면 陽이 써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 원칙적으로 마땅히 黃柏·知母의 크게 쓰고 찬 藥을 써서 腎과 膀胱을 補하여 陰氣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면 陽도 저절로 변화되어 小便이 저절로 통하게 되니, 木部의 黃柏 아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³⁷⁾

35)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85. “『素問』一書, 言辛甘發散, 淡滲泄爲陽, 酸, 苦, 鹹涌泄爲陰. 發散歸於汗, 涌歸於吐, 泄歸於下. 滲爲解表同於汗, 泄爲利小便同於下, 殊不言補.”

36)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389-391. “時珍曰滑石利竅, 不獨小便也. 上能利毛膜之竅, 下能利精溺之竅. 蓋甘淡之味, 先入於胃滲走經絡, 游溢津氣, 上輸於肺, 下通膀胱. 肺主皮毛, 爲水之上源. 膀胱司津液, 氣化則能出. 故滑石上能發表, 下

利水道, 爲瀉熱燥濕之劑. 發表是瀉上中之熱, 利水道是瀉中下之熱, 發表是燥上中之濕, 利水道是燥中下之濕. 熱散則三焦寧而表裏和, 濕去則關門通而陰陽利. 劉河間之用益元散, 通治表裏上下諸病, 蓋是此意, 但未發出爾.”

37)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本草綱目·知母·發明』에서 淡味와 관련된 부분은 小便不利로 小便이 막히고 갈증이 있는 경우 上焦에 氣分熱이 있는 것으로 보고 肺에 잠복된 熱을 다스려 줌으로써 金生水하여 水가 化生할 수 있는 근원을 滋養함에 氣도 薄하고 味도 薄한 淡滲한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上焦의 氣分熱과 下焦의 血分熱을 대비하여 서술했는데, 下焦에 血分熱로 소변이 막혔으나 갈증이 나지 않는 경우는 眞水가 부족하여 膀胱이 건조하고 마른 것이니, 知母·黃柏과 같이 苦寒한 藥을 써서 下焦의 腎·膀胱을 補하여 陰이 있음으로써 陽도 저절로 氣化되어 소변이 저절로 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淡味를 味가 薄한 것 뿐만이 아니라 氣도 薄하다고 본 것이고, 氣味가 모두 薄한 성질을 활용하여 淡滲한 약으로 通하게 하고 發泄하게 하여 上焦 肺氣를 소통시켜줌으로써 滋水하여 小便不利에 渴症이 겸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淡味가 上焦에 작용한 뒤에 下焦에 작용함을 의미한다.

(7) 『本草綱目·澤瀉·發明』

“時珍이 말하기를, 澤瀉는 氣가 平하고, 맛은 달고 담담하다. 淡味는 능히 滲泄시킬 수가 있는데, 氣味가 모두 薄해서 利水하고 泄下시킨다. 脾胃에 濕熱이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어둡고 귀가 울린다. 澤瀉가 그 濕을 삼켜서 없애면 熱도 또한 따라서 나가고, 土氣가 숨을 얻으면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 天氣가 밝고 상쾌해지므로 澤瀉는 五臟을 기르고 기력을 더하게 하며, 頭眩를 치료하고 귀와 눈을 총명하게 하는 공효가 있다. 만약에 오랫동안 복용하면 하강하는 숨이래 과하여 맑은 기운이 상승하지 못하고 眞陰이 남몰래 소모되니 어찌 눈이 어둡지 않을 수 있겠는가. 張仲景이 地黃丸에 茯苓과 澤瀉를 쓴 것은 곧 그것이 膀胱의

邪氣를 瀉하는 것을 취한 것이지, 이끌어 접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옛 사람들이 補藥을 쓸 때 반드시 邪氣를 瀉하는 것을 겸하였으니, 邪氣가 제거되면 補藥은 힘을 얻어서 한 번 열고 한 번 닫게 되니, 이것이 곧 현묘함이다. 후세에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補에만 집중하니,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반드시 한쪽으로 勝하게 되는 피해가 이르게 된다.”³⁸⁾

『本草綱目·澤瀉·發明』에서 淡味와 관련된 부분은 澤瀉의 맛이 달고 담담하여 淡味가 능히 滲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淡味の 특징이 氣味가 모두 薄하여 利水시키고 아래쪽으로 배설시킨다고 했다. 澤瀉의 淡味 설명에서는 기운이 상승한 뒤에 하강한다고 하지는 않았고, 脾胃의 濕熱이 있어서 머리가 무겁고 上竅도 청명하지 않을 때 澤瀉를 써서 滲濕시키면 熱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清氣가 올라가 머리가 상쾌해져 頭重 증상이 개선되고, 上竅가 막혀 눈이 어둡고 귀가 울리는 증상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古人들의 用藥법에 있어서 補藥을 쓸 때 모든 약을 다 補하는 약으로 배치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瀉하는 약을 겸하여 사용하는 이치가 한편으로는 열어주고 한편으로는 닫아줘서 조절하는 현묘한 방법이니, 補藥을 久服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酸苦甘辛鹹味가 肝心脾肺腎으로 각각 들어가서 五臟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淡味는 그와는 반대로 비워주고 씻어 내려 주어 청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머리를 맑게 하고, 귀와 눈을 총명하게 한다고 본 것이다.

(8) 『本草綱目·槩木·發明』

“李杲가 말하기를, 黃蘗과 蒼朮은 곧 痿證을 다스리는 要藥이니, 무릇 下焦의 濕熱로 붓고 아픈 증상과 아울러 膀胱에 火邪가 있거나 아물러 小便이 不利하고

華夏出版社. 2002. pp.506-508. “杲曰知母入足陽明、手太陰。其用有四：瀉無根之腎火，療有汗之骨蒸，止虛勞之熱，滋化源之陰。仲景用此入白虎湯治不得眠者，煩躁也。煩出於肺，躁出於腎。君以石膏，佐以知母之苦寒，以清腎之源；緩以甘草、粳米，使不速下也。又凡病小便塞而渴者，熱在上焦氣分，肺中伏熱不能生水，膀胱絕其化源，宜用氣薄、味薄、淡滲之藥，以瀉肺火、清肺金而滋水之化源。若熱在下焦血分而不渴者，乃眞水不足，膀胱乾涸，乃無陰則陽無以化，法當用黃柏、知母大苦寒之藥，以補腎與膀胱，使陰氣行而陽自化，小便自通。方法詳載木部黃柏下。”

38) 李時珍 編纂，劉恒如，劉山永 校注。本草綱目上冊。北京，華夏出版社。2002. pp.917-918. “時珍曰澤瀉氣平，味甘而淡。淡能滲泄，氣味俱薄，所以利水而泄下。脾胃有濕熱，則頭重而目昏耳鳴。澤瀉滲去其濕，則熱亦隨去，而土氣得令，清氣上行，天氣明爽，故澤瀉有養五臟、益氣力、治頭眩、聰明耳目之功。若久服，則降令太過，清氣不升，眞陰潛耗，安得不目昏耶。仲景地黃丸用茯苓、澤瀉者，乃取其瀉膀胱之邪氣，非引接也。古人用補藥必兼瀉邪，邪去則補藥得力，一辟一闢，此乃玄妙。後世不知此理，專一於補，所以久服必致偏勝之害也。”

누르고 깔끄러운 것을 없앨 경우에는 솔로 씻은 黃蘗과 知母를 근약으로 삼고, 茯苓과 澤瀉를 佐藥으로 삼는다. 무릇 小便이 통하지 않으면서 口渴이 있는 경우에는 邪熱이 氣分에 있는 것이니, 肺 속의 伏熱이 능히 물을 생하게 할 수가 없으니, 이는 小便의 근원을 끊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마땅히 氣味가 모두 薄하여 淡滲하는 藥을 써야 하니, 猪苓·澤瀉의 부류는 肺火를 瀉하고 肺金을 맑게 하여 水가 化生되는 根源을 불어나게 한다. 만약 邪熱이 下焦의 血分에 있어서 갈증이 나지 않고 小便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 『素問』에서 이른바 '陰이 없으면 陽이 써 생겨날 수가 없고, 陽이 없으면 陰이 써 변화할 수가 없다. 膀胱은 州都之官으로 津液을 간직하고 있다가 氣化가 되면 능히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원칙적으로 마땅히 氣味가 모두 두터운 陰中의 陰인 藥으로 다스려야 하니, 黃蘗과 知母가 이것이다."³⁹⁾

『本草綱目·槲木·發明』에서는 槲木, 즉 黃柏이 淡味를 지닌 것은 아니고, 知母·黃柏과 猪苓·澤瀉로 약물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는 과정 중에 淡味와 관련된 설명을 볼 수 있다. 淡味와 관련된 부분은 小便이 통하지 않으면서 口渴이 나타나는 것은 邪熱이 氣分에 있는 것으로 肺에 잠복된 熱이 있게 되면 金生水의 작용이 제대로 안 되어 小便이 생성되는 원천을 끊어버리게 되므로 肺金을 맑게 하고, 肺火를 瀉하여 水가 化生하는 根源을 滋養해야 하고, 이때 마땅히 氣味가 모두 薄하여 淡滲할 수 있는 猪苓이나 澤瀉의 부류를 쓰라고 할 때 淡味が 언급되었다. 邪熱은 氣分에 있느냐 血分에 있느냐에 따라서 用藥法이 달라지는데, 邪熱이 氣分에 있어서 小便不 통과 口渴이 나타나면 肺中에 伏熱이 물을 생할 수가 없으니, 이는 小便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으로 응당 氣味가 모두 薄하고 淡滲하는 猪苓과 澤瀉와 같은 약

물을 써서 肺火를 瀉하고 肺金을 맑게 하여 金生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邪熱이 下焦 血分에 있어서 小便不通하지만 갈증이 없는 경우에는 氣味가 모두 厚한 黃蘗과 知母 같은 藥을 써서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는 邪熱이 氣分에 있어서 나타나는 小便不 통과 口渴에는 猪苓·澤瀉와 같은 淡滲한 藥을 써서 淸肺하여 上焦의 肺氣를 소통시킴으로써 利小便하게 함을 말한다.

(9) 『本草綱目·枸杞子·發明』

“時珍이 말하기를, …中略…, 다만 뿌리, 싹, 열매의 氣味는 조금 다르고, 主治도 또한 반드시 구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개 그 싹은 곧 天精으로 쓰고 달며 서늘하니, 上焦의 心肺客熱이 있는 사람에게 마땅하고, 뿌리는 곧 地骨로 달고 담담하며 차니, 下焦 肝腎의 虛熱이 있는 사람에게 마땅하니, 이것은 모두 三焦의 氣分藥이다. 일컬은바 ‘안에서 熱이 어지럽히면 달고 찬 성질로써 瀉한다.’라고 하였으니, 열매에 이르러서는 곧 달고 꾸하고 촉촉이 적시며, 성질이 불어나게 하고 補해줘서 능히 열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補腎潤肺하고 生精益氣하니, 이것은 곧 平補하는 藥으로 소위 ‘精이 부족한 경우에는 味로써 補한다.’라는 것이다. 나누어서 쓰면 각각 주관하는 것이 있고, 겹하여 쓰면 일거양득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만 黃芩·黃連의 苦寒한 약으로 上焦의 火를 다스리고, 黃柏·知母의 苦寒한 약으로 下焦의 陰火를 다스리는 것만을 알고, 補陰降火라고 일컬으면서 오래 복용하면 元氣를 손상하게 된다. 枸杞子和 地骨皮가 달고 차며 平補하여 精氣로 하여금 채워주어 邪火가 저절로 물러나게 되는 묘함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애석하다.”⁴⁰⁾

『本草綱目·枸杞子·發明』에서 淡味와 관련된 부분은 구기자나무의 뿌리 껍질인 地骨皮가 달고 담담하

39)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1328-1331. “梟曰黃蘗、蒼朮、乃治痿要藥。凡去下焦濕熱作腫及痛, 並膀胱有火邪, 並小便不利及黃澀者。並用酒洗黃蘗知母爲君, 茯苓澤瀉爲佐。凡小便不通而口渴者, 邪熱在氣分, 肺中伏熱不能生水, 是絕小便之源也。法當用氣味俱薄淡滲之藥, 猪苓澤瀉之類, 瀉肺火而淸肺金, 滋水之化源。若邪熱在下焦血分, 不渴而小便不通者, 乃『素問』所謂無陰則陽無以生·無陽則陰無以化。膀胱者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法當用氣味俱厚陰中之陰藥治之, 黃蘗知母是也。”

40)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1415-1419. “時珍曰…中略…, 但根、苗、子之氣味稍殊, 而主治亦未必無別。蓋其苗乃天精, 苦甘而涼, 上焦心肺客熱者宜之。根乃地骨, 甘淡而寒, 下焦肝腎虛熱者宜之。此皆三焦氣分之藥, 所謂熱淫於內、瀉以甘寒也。至於子則甘平而潤, 性滋而補, 不能退熱, 止能補腎潤肺, 生精益氣。此乃平補之藥, 所謂精不足者, 補之以味也。分而用之, 則各有所主, 兼而用之, 則一舉兩得。世人但知用黃芩、黃連, 苦寒以治上焦之火, 黃柏、知母, 苦寒以治下焦陰火。謂之補陰降火, 久服致傷元氣, 而不知枸杞、地骨甘寒平補, 使精氣充而邪火自退之妙, 惜哉。”

며 차다고 할 때 나온다. 구기자나무의 뿌리와 싹과 씨앗은 부위에 따라 그 氣味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主治도 달라지는데, 구기자나무의 싹인 天精은 氣味が 苦甘涼하여 上焦 心肺의 客熱이 있는 경우에 마땅하고, 구기자나무의 뿌리인 地骨皮는 甘淡寒하여 下焦 肝腎의 虛熱에 마땅하며, 구기자는 甘平潤하여 滋補하지만 退熱시킬 수는 없고, 平補한다고 하였다. 구기자나무의 싹과 뿌리와 씨앗은 모두 三焦의 氣分藥으로, 함께 쓰면 一舉兩得이라고도 하였다.

(10) 『本草綱目·茯苓·發明』

“또한 말하기를, 淡은 天의 陽이 되고, 陽은 마땅히 上行해야 하니, 어찌 利水시켜서 瀉下하는가. 氣가 薄한 경우는 陽中の 陰이어서 茯苓은 利水하고 瀉下하면 서도 陽의 體를 떠나지 않으므로 手太陽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中略…, 時珍이 말하기를, 茯苓은 本草 책에서 또한 利小便하고 腎邪를 친다고 말했다. 李東垣과 王海藏에 이르러서는 이내 소변이 많은 경우에는 능히 그치게 할 수가 있고, 소변이 걸끄러운 경우에는 능히 통하게 할 수가 있으며, 硃砂와 함께 쓰면 眞元을 습진다고 하였고, 朱丹溪는 또한 陰虛한 경우에는 마땅히 써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으니, 뜻이 서로 상반되는 듯하니, 어찌서인가. 茯苓은 氣味が 담박하여 스며 나가고, 그 성질은 上行하여서 津液을 생기게 하고, 腠理를 열며, 水의 근원을 불어나게 해서 하강하여 利小便시키므로 張潔古가 그것이 陽에 속하고, 또면서 상승한다라고 한 것은 그 성질을 말한 것이고, 東垣이 일컬기를 그것이 陽中の 陰이고 하강한다고 한 것은 그 공효를 말한 것이다. 『素問』에서 이르기를, ‘飲食이 胃로 들어가 精氣가 흘러넘쳐서 위로 肺로 수송이 되고, 水道를 통하게 하고 조절하여 아래로 膀胱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살펴보면 淡味를 지니서 스며 나가는 藥은 모두 상행한 뒤에 하강하는 것이지, 곧장 하강하는 것은 아니다. 小便이 많은 것은 그 근원이 또한 다르다.”⁴¹⁾

『本草綱目·茯苓·發明』에서 淡味와 관련된 부분은 茯苓의 氣味が 담박하여 스며게 하고, 담박한 것은 天의 陽이라고 설명한 부분 및 淡滲한 약물이 모두 상행한 뒤에 하강하는 것이지 곧장 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茯苓이 담박한 성질을 지녔고, 담박함은 天의 陽이니 상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利水 작용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氣가 薄한 것이 陽中の 陰이므로 陰陽의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利水瀉下한다고 했다. 또한 茯苓의 氣味が 淡滲하여 그 성질이 상행하여 津液을 생기게 하고 腠理를 열어주어 水의 化生할 수 있는 근원을 불어나게 하여 하강시켜 利小便한다고 하였다. 張潔古는 淡味が 陽에 속하여 뜨고 올라가는 것은 그 性を 말한 것이고, 李東垣이 淡味를 陽中の 陰이 되어 下降한다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功效를 말한다고 한 것에서 淡味の 陰陽 특성에 대한 논란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素問』을 인용하면서 淡滲한 藥은 모두 上行한 뒤에 하강하는 것이지 곧바로 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淡味를 지닌 약물이 곧바로 下焦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上焦 肺에 자극을 주어서 通調水道하여 下輸膀胱함으로써 利小便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 『本草乘雅半偈』에 기재된 淡味 관련 논설

“蜜蠟 : 蠟에서 말하기를, 밀랍은 꿀에서 생기고, 천하의 맛 중에서 꿀보다 단 것은 없으며, 밀랍보다 담박한 것은 없다. …中略…, 參에서 말하기를, 『素問』에서 별도로 淡味를 내었는데, 五味의 근본이 된다. 무릇 形藏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각 그 味로써 補해주고, 기울어져 쇠퇴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淡味로써 유지해준다. 『本經』에서 味를 판정하여 달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혀에 달라 붙을 때 여전히 꿀의 맛이 남아 있는 것을 가리키며, 씹어서 꿀맛이 없어진다면 참된 맛이 나타난다. 淡味는 싫증이 나지 않고, 質은 가히 오래갈 수

者能通, 同硃砂能秘眞元. 而朱丹溪又言陰虛者不宜用, 義似相反, 何哉. 茯苓氣味淡而滲, 其性上行, 生津液, 開腠理, 滋水之源而下降, 利小便. 故張潔古謂其屬陽, 浮而升, 言其性也, 東垣謂其爲陽中之陰, 降而下, 言其功也. 『素問』云飲食入胃, 游溢精氣, 上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觀此, 則知淡滲之藥, 俱皆上行而後下降, 非直下行也. 小便多, 其源亦異.”

41)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1437-1439. “又云淡爲天之陽, 陽當上行, 何以利水而瀉下. 氣薄者陽中之陰, 所以茯苓利水瀉下. 不離陽之體, 故入手太陽. …中略…, 時珍曰茯苓本草又言利小便, 伐腎邪. 至李東垣, 王海藏乃言小便多者能止, 瀧

가 있으며, 배고프지 않고 노화를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로써 해야 한다.”⁴²⁾

盧之頤는 『本草乘雅半偈』의 蜜蠟 약물 설명에서 蜜蠟과 蜜의 맛을 대비해서 설명했다. 蜜蠟이 꿀에서 생기지만, 그 맛은 가장 담담하다고 하였고, 기우어져 쇠퇴하는 경우, 즉 노화가 진행될 경우에 淡味를 지닌 蜜蠟으로써 노화를 막아준다고 하였다. 蜜蠟을 『本經』에서 甘味라고 관정한 것은 단지 혀에 남아 있는 꿀맛 때문이며, 꿀맛이 없어졌을 때 남아 있는 맛이 참된 맛으로 그 담담한 맛은 싫증이 나지 않아 그 質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기에 蜜蠟의 효능은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며, 노화를 막는 것이라고 했고, 『素問』에서 五味 외에 별도로 淡味를 낸 것에 대해 五味的 근본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淡味가 酸苦甘辛鹹과 같은 뚜렷한 맛을 지니지 않았으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淡薄하여 모든 맛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本經疏證』에 기재된 淡味 관련 논설

“澤瀉 : 말하기를 淡滲한 약물은 그 능히 去水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먼저 上行한 이후에 下강한다고 하니, 이 說은 李瀕湖에게서 일어난 것이요, 張隱庵과 陳修園이 처음 만든 說은 아니다. …中略…, 오직 嘔吐, 口渴, 悸, 眩에 쓰는 약물은 茯苓·猪苓·澤瀉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淡味로 滲泄하게 하는 약물이다. …中略…, 그 사람이 뒤집어 쓴 느낌이 들고 어지러운 것을 괴로워하면 또한 무릇 利水라는 것이 마땅히 그 물의 生熟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어떤 것을 生熟이라고 일컫는가. 무릇 이미 脾로 옮겨지고 肺로 되돌아간 것은 熟水이고, 아직 脾로 옮겨지고 肺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은 生水이다. 熟水는 이미 精華를 걸러내었고, 다만 水의 質만 남아 있으므로 곧장 이르게 하여 밀으로 내보내는 것이 되지만, 生水는 天真이 아직 떠나지 않았고 精華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반드시 이끌어 상행하도록 한 뒤에 하강하게 하여 이내 그 함상됨을 잃지 않게 할 뿐이다. 淡味로 滲泄하게 하는 약물은 모두 生水를 운행하는 것이니, 곧장 하강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보건대 같지 않다.”⁴³⁾

鄒澍는 『本經疏證』의 澤瀉 약물 설명에서 淡滲하는 약물은 능히 去水할 수 있는데, 반드시 먼저 上行한 뒤에 下降한다고 하여 李時珍의 학설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利水 작용에서 물의 生熟을 헤아리라고 하면서 脾로 옮겨지고 肺로 되돌아간 것은, 熟水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生水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淡味로 滲泄하게 하는 약물의 대상을 脾와 肺를 거치지 않은 生水로 한정하여 말한 것이 李時珍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本草思辨錄』에 기재된 淡味 관련 논설

“澤瀉 : 猪苓과 茯苓과 澤瀉 세 가지는 모두 淡滲한 약물로 그 쓰임은 전적으로 利水에 있다. 張仲景 聖人の 五苓散과 猪苓湯에서 세 가지 약물을 모두 함께 썼고, 겹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내가 대체로 『本經』과 『內經』을 얻었는데, 『本經』에서는 猪苓이 利水道하고, 茯苓이 利小便하며, 澤瀉가 消水한다고 했고, 『內經』에서는 三焦가 水道가 되고, 膀胱이 水府가 되며, 腎이 三焦와 膀胱의 주인이 된다고 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살펴보면 猪苓은 三焦의 水를 활리하게 하는 것이고, 茯苓은 膀胱의 水를 활리하게 하는 것이며, 澤瀉는 腎水를 활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中略…, 消渴은 上焦와 中焦에 모두 있어서 陰虛하고 津액이 耗損되어 갈증이 생기거나 燥 津이 熱에 의해 渇어져서 갈증이 생기거나 燥 熱이 水와 더불어 맺혀서 갈증이 생기니, 세 가지 약물은 다만 利水함으로써 열을 없애니, 어찌 일찍이 人參·栝樓根과 같이 生津補陰하는 능력이 있었는가. 李時珍이

42) 盧之頤 覈參. 冷方南, 王齊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196-197. “蜜蠟 : 覈曰, 蠟生於蜜, 而天下之味莫甘於蜜, 莫淡於蠟. …中略…, 參曰, 素問另出淡味爲五味本, 凡形藏不足者, 各以其味以補之. 傾頤者, 專以淡味以維之. 本經判味曰甘, 此指舌時, 猶有蜜味在, 嚼之蜜味去, 眞味現矣. 淡不厭, 質可久, 不饑耐老者以此.”

43) 鄒澍潤安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 上. 大田, 주민출판사. 2012. pp.206-207. “澤瀉 : 曰淡滲之物, 其能去水, 必先上行而後下降, 是說起於李瀕湖, 非張隱庵陳修園創說也. …中略…, 惟嘔吐口渴及悸眩者, 多屬之茯苓·猪苓·澤瀉, 是皆淡滲之物也. …中略…, 其人苦冒眩, 則亦可知凡利水者, 當計其水之生熟矣. 何謂生熟. 夫已經輸脾歸肺者, 熟水也. 未經輸脾歸肺者, 生水也. 熟水已曾泌別精華, 但存水質, 故直達之, 使下出可矣. 生水者天真未離, 精華未去, 故必引之使上而後下, 乃不失其常耳. 淡滲之物, 皆行生水者也. 較之直使下降者不同.”

일컬기름, 淡滲한 약물은 그 능히 去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먼저 上行한 후에 下降한다고 하였으니, 仲景 聖人께서 猪苓·茯苓·澤瀉 세 가지 약물을 쓴 것으로써 헤아려보건대, 바로 반드시 그 논의를 너무 과장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⁴⁴⁾

周巖은 『本草思辨錄』의 澤瀉 약물 설명에서 猪苓·茯苓·澤瀉가 모두 淡滲하는 약물로 그 쓰임은 전적으로 利水에 있고, 張仲景이 五苓散과 猪苓湯을 쓸 때 猪苓·茯苓·澤瀉를 모두 병용했는데, 겹치는 것을 미워하지 않은 것은 그 쓰임이 利水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本經』과 『內經』의 말을 종합하여 猪苓은 결국 三焦水를, 茯苓은 膀胱水를, 澤瀉는 腎水を 활리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고, 消渴이 나타날 때 猪苓·茯苓·澤瀉가 利水함으로써 熱을 없애는 것은 人參이나 栝樓根이 生津補陰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보았으며, 李時珍이 淡滲한 약물은 능히 去水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먼저 上行한 뒤에 下降한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지나친 주장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本草綱目』에 나오는 淡味 논설에서 淡味는 味가 薄하여 通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陰中之陽이므로 陰과 陽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淡味는 利竅하며, 淡味の 滲泄하는 작용은 滲이 解表發汗하는 것이고, 泄이 利小便하는 것으로 淡味の 滲泄 작용은 보통 上焦 쪽으로 상승한 뒤에 다시 하강하는 방식이 일어나며, 이는 곧바로 下焦에 작용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李時珍의 淡味 학설은 후대에 나온 『本經疏證』이나 『本草思辨錄』에도 영향을 미쳐서 淡味는 반드시 먼저 上行한 뒤에 下降한다는 설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淡味の 陰陽 속성이 무엇이나라고 했을 때 陰中之陽으로써 陰陽

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淡味가 三焦를 통해 發汗하고 利小便함으로써 몸 전체의 氣機를 소통하여 津액을 불러주고, 津액을 불러줌으로써 다시 氣機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므로 陰陽의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本草乘雅半偈』에서는 淡味를 五味의 根本으로 삼으면서 形藏이 부족한 경우에는 肝心肺脾腎의 부족에 따라 酸苦甘辛鹹으로써 補하고,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경우에는 淡味로써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淡味가 滋味이 나지 않는 眞味로 이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늙음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元氣와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考察

1. 淡味를 지닌 약물의 특성

서론에서 朱丹溪가 淡味에 대해 陰을 補한다고 한 것과 『內經』의 “淡味滲泄爲陽.”이 서로 배치기움을 문제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본론에서 본초학 교과서와 『本草綱目』을 중심으로 淡味가 포함되어 있는 약물을 찾아보고, 그 약물들의 氣味와 效能主治를 살펴보았다.

味の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총 15개의 淡味 약물 중에서 淡味 하나로만 표기된 것은 白羊石 하나였고, 苦味를 함께 지녀서 苦淡으로 표기된 것은 象肉 하나였으며, 竹葉은 辛苦하다고 한 판본이 있고, 甘淡하다고 한 판본이 있었는데, 辛苦하다면 이는 辛味로 氣를 돌려서 熱을 내리고, 黃芩이나 黃連처럼 직접 熱을 치는 것은 아니나 苦味로 熱을 내리며, 甘淡하다면 生津시키면서 清熱하는 효능이 있다. 白羊石과 象肉과 竹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약은 甘味를 함께 지녀서 甘淡으로 표기되었고 淡味를 甘味에 함께 붙여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淡味를 지닌 약물 15개 중에서 氣를 살펴보면, 15개 중에서 5개의 약물이 平이었고, 3개의 약물이 微寒 또는 涼이었으며, 6개의 약물이 寒이었고, 羊鬣은 유일하게 溫이었으며, 白羊石은 생 것을 쓰면 涼하고 익힌 것을 쓰면 熱하여 生熱에 따라 성질이 변화되었으나, 淡味를 지닌 약물들이

44) 裘吉生, 本草思辨錄(珍本醫書集成2). 서울. 醫聖堂. 1994. pp.550-551. “澤瀉：猪苓茯苓澤瀉，三者，皆淡滲之物。其用全在利水。仲聖五苓散猪苓湯，三物並用。而不嫌於復。此其故。愚蓋得之本經與內經矣。本經猪苓利水道。茯苓利小便。澤瀉消水。內經三焦爲水道。膀胱爲水府。腎爲三焦膀胱之主。合二者觀之。得非猪苓利三焦水。茯苓利膀胱水。澤瀉利腎水乎。…中略…，消渴上中焦皆有之。或陰虛津虧而渴，或津被熱燥而渴，或熱與水結而渴，三物第利水以除熱，何嘗如人參栝樓根有生津補陰之能。李氏謂淡滲之物。其能去水。必先上行而後下降。以仲聖用三物證之。正不必過高其論也。”

대체로 찬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淡味를 지닌 약물의 효능을 살펴보면, 크게 淸熱, 利水, 解毒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었다(표1 참조). 淸熱利水解毒을 모두 할 수 있는 약물은 西瓜瓢, 鴨跖草, 通草, 滑石이고, 淸熱利水를 하는 약물은 淡竹葉, 燈心草, 薏苡仁, 竹葉이며, 理氣하여 淸熱하는 약물은 羊鬻⁴⁵⁾이고, 淸熱利水를 하는 약물은 茯苓, 象肉, 豬苓이며, 解毒을 하는 약물은 白羊石, 土茯苓, 娑婆石이었다. 또한 淸熱로 치료할 수 있는 病證은 熱病煩渴, 風熱, 暑熱, 濕熱, 心煩失眠 등이며, 利水로 치료할 수 있는 病證은 小便不利, 小便赤澀, 水腫尿少, 淋證 등이며, 解毒으로 치료할 수 있는 病證은 藥毒, 酒毒, 熱毒, 蟲毒 등이다. 이는 淡味를 지닌 약물이 땀을 잘 나가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함으로써 津液이 잘 선포되고 유통되게 하는 작용을 발휘함을 말한다. 이는 몸속의 노폐물이 땀과 소변으로 배설되어 津液이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津液이 잘 선포되고 유통됨을 말하며, 진액 대사가 잘 되면 元氣도 잘 생성됨을 말한다.

氣와 液의 관계에 대해서는 『東醫寶鑑·內景篇·津液門』에서 『直格書』를 인용하여 “옛날에 성인이 말 씀하시기를, 陽 가운데서 陰이 생기고, 陰 가운데서 陽이 생긴다. 氣 가운데서 液이 생기고, 液 가운데서 氣가 생긴다.”라고 하여⁴⁶⁾ 氣와 液이 서로 相生함을 말하였다.⁴⁷⁾ 만약 氣機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땀구멍이 閉塞되거나 小便이 막히고, 風熱·暑熱·濕熱로 인한 病證이 발생하며, 심지어는 熱毒으로 인한 각종 피부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45) 羊鬻은 氣癰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淸熱利水解毒 중에서 淸熱 쪽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 氣癰에 대해서 찾아보니 氣癰의 발생은 대부분 마음이 우울하거나 물과 토질이 맞지 않아 일어나고, 앞목 부위에 腫物이 생기는 것으로 가장자리가 뚜렷하지 않고 피부 빛깔은 정상이며 눌러 보면 말랑말랑한데 걸겹거나 성을 밟에 따라 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어 작아지기도 하는 특징을 지녔으며 치료는 理氣解鬱, 化痰軟堅, 健脾除濕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氣를 돌려서 氣癰으로 인해 발생한 熱을 내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46) 許浚 著. 東醫文獻研究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359. “古聖曰, 陽中生陰, 陰中生陽, 氣中生液, 液中生氣. 又曰, 積液生氣, 積氣生液.”

47) 신상원.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48-50.

15개 淡味 약물이 대체적으로 淸熱, 利水, 解毒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 淡味 약물에 기재되어 있는 淸熱 효능은 직접적으로 熱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三焦의 氣機를 잘 운행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利水와 解毒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5개의 淡味 약물 중에서 淡竹葉, 燈心草, 西瓜瓢, 鴨跖草, 薏苡仁, 竹葉, 通草, 滑石 등이 淸熱과 利水の 효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는 淡味の 利水작용으로 인하여 氣機가 소통됨으로써 간접적으로 熱을 내리는 것이다. 이 중에서 竹葉의 氣가 평한 것을 제외하면 寒涼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氣의 측면에서 淸熱을 돕는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淸熱利水解毒 외에도 通氣下乳하고 寬中下氣하며 健脾寧心하는 효능도 있어서 종합해 보면, 淡味が 上中下焦의 氣液⁴⁸⁾ 代謝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淡味를 지닌 약물은 三焦의 氣機를 돌려서 땀이나 小便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津液⁴⁹⁾이 잘 선포되고 유통되도록 하며, 津液이 잘 선포되고 유통되면 津液과 氣의 相生 관계에 의하여 氣도 또한 잘 생성되도록 도울 수 있다.

48) 신상원.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16. “氣道는 三焦로 통해 있는데, 表裏의 虛實이 고루 알맞도록 한다. 여기에서의 三焦는 氣道와 연관지은 것을 볼 때 단순한 인체의 공간 분할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元氣와 水液이 유통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적용한 것이다. …中略…; 氣液 機轉은 기능적, 공간적으로 三焦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氣(氣液)가 三焦로 호흡됨으로써 氣(氣液)의 虛實이 表裏 사이에서 內外의 방향으로 운동 양상이 나타난다.”

49) 최동현. 三焦와 元氣, 津液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p.90-97. “先天之氣와 後天之氣가 모두 津液에 관여한다는 뜻으로 三焦는 이들의 작용을 開闢의 원리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았다. 三焦의 開闢이란 三焦가 津液 대사에 직접적으로 開闢 작용을 하여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氣와 津液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中略…; 평소엔 땀이 霧露之氣의 형태로 자연 증발을 하는 것은 元氣가 담당하고 체온이 올라 조절을 해야 하거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衛氣가 出氣되면 津의 형태로 땀이 나오게 된다. 營氣도 衛氣와 유사하여 평소에는 元氣에 의해 露의 형태로 孫脈까지 끌고루 퍼져 있다가 出氣하게 되면 液의 형태로 여러 脈絡을 통해 몸속을 이동하는 것이다.”

2. 淡味 관련 논설의 내용

『本草綱目』을 위주로 淡味에 대한 논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淡味는 味가 薄하여 通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陰中之陽이므로 陰과 陽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淡味에 대하여 『素問·至真要大論』에서 “淡味滲泄爲陽.”이라고 했는데, 滲泄 중 滲은 發汗과 연관되고, 泄은 利小便과 연관되며, 淡味の 滲泄 작용은 보통 上焦 쪽으로 상승한 뒤에 다시 하강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며, 이는 곧바로 下焦에 작용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에서 “上焦得通, 津液得下, 胃氣因和, 身濺然汗出而解.”⁵⁰⁾라고 하였는데, 上焦의 肺氣가 먼저 소통되어야 이에 따라 三焦의 氣液 代謝가 원활해져서 氣도 잘 돌게 되고, 津液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며, 그 결과로 다시 氣가 잘 선포되고 운영되어 津液을 다시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본론에서 살펴본 淡味 논설 중에 張子和의 汗吐下三法에서 滲泄을 發汗法과 下法에 귀속시켰고, 滑石의 설명에서 滑石으로 發表하고 利水하여 三焦가 편안하다고 하였으며, 枸杞子の 설명에서 三焦의 氣分藥이라고 하였고, 知母와 檉木의 설명에서 소변이 막히고 갈증이 겸한 경우 氣分熱로 보고 淸肺金하여 水의 化源을 보태줘야 한다고 했고, 澤瀉의 설명에서 滲濕하면 熱도 빠져 나가 淸氣가 상행하여 귀와 눈이 밝아진다고 했고, 茯苓의 說明에서 淡滲한 약물들이 모두 上行한 뒤에 下降하는 것이지 곧장 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李時珍의 淡味 학설은 『素問·經脈別論』에서 “飲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⁵¹⁾이라고 하여 津액 대사를 설명한 것과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후대에 나온 『本經疏證』이나 『本草思辨錄』에도 영향을 미쳐서 淡味는 반드시 먼저 上行한 뒤에 下降한다는 說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淡味の 陰陽 속성의

측면으로 볼 때 陰中之陽으로써 陰陽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淡味가 三焦를 통해 發汗하고 利小便함으로써 몸 전체의 氣機를 소통하여 津液을 선포하고 유통시키며, 津液의 선포와 유통은 다시 氣를 생성하여 전반적으로 氣機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므로 淡味는 陰陽의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本草乘雅半偈』에서는 淡味를 五味의 根本으로 삼으면서 形藏이 부족한 경우에는 肝心脾肺腎의 부족에 따라 酸苦甘辛鹹으로써 補하고,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경우에는 淡味로써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淡味가 滋味가 나지 않는 眞味로 이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늙음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元氣와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淡味の 작용은 三焦와 연관지어 설명해 볼 수 있다. 『素問·靈樞秘典論』에서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⁵²⁾이라고 했고, 『靈樞·本藏』에서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⁵³⁾이라고 했으며, 『難經·六十六難』에서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藏六府.”⁵⁴⁾라고 하였다. 또한 周學海의 『讀醫隨筆·三焦水道膀胱津液論』에서 “三焦는 水가 운행하는 길이지 水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아니다. 땀과 소변은 모두 三焦를 경유하므로 땀이 많으면 소변이 적어지는 것은 水가 三焦에 있기 때문이니, 곧 熱氣의 薰蒸과 鼓動을 받아 膜의 바깥으로 누설되고, 피부로 도달하여 膀胱으로 傳入하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膀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땀이 된다. …… 말하기를 水라고 하고, 津液이라고 한 것은 水가 三焦에 있으면 氣味가 맑고 담백하여 오히려 근본의 바탕이지만, 발산하여 땀이 되면 맛이 짜고, 傳入해서 小便이 되면 누린내가 나니, 이미 人氣에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모두 津액으로써 명명할 수 있다. 땀은 膀胱의 津液이 아니고, 小便은 三焦의 水가 아니다. 이에 땀은 소변과 더불어 모두 三焦의

50) 김동희 외 17人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384.

5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86.

5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34.

5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5.

54)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0. p.152.

水로 밖으로 나가고 아래로 나가는 것이다.”⁵⁵⁾라고 하여 腠理를 통해 새어나가는 땀과 소변을 통해 나가는 것이 모두 三焦의 水라고 하여 三焦와 연관시켰다. 이처럼 淡味는 땀을 잘 나가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결과적으로 津液이 선포되고 유통되게 하며, 津液의 선포와 유통은 다시 氣를 생성하게 하여 전반적으로 三焦의 氣液 代謝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3. 淡味の 陰陽 특성

淡味에 대하여 『素問·至眞要大論』에서 “淡味滲泄爲陽”⁵⁶⁾이라 한 반면에 金元四大家인 朱丹溪는 『格致餘論·茹淡論』에서 “粳米가 달고 담담한 것은 土의 德으로 粳米는 陰에 속하여 가장 잘 補한다.”⁵⁷⁾고 하였고, 『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에서 “옛사람들이 여름에 반드시 홀로 잠들며 담담한 음식을 먹었던 것은 아끼고 보호하는 것에 조심하고 삼갔던 것이니 金水의 두 臟을 보호하고 기르며 火土의 왕성함을 혐오했을 뿐이다.”⁵⁸⁾라고 하여 淡味가 陰을 補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았으며, 『格致餘論·惡寒非寒病惡熱非熱病論』에서 “燥熱이 이미 많고, 血이 손상된 것도 또한 깊으니, 모름지기 淡味를 먹어서 이로써 胃를 기르고, 內觀하여서 이로써 神을 기르면 水를 가히 생기게 할 수가 있고, 火를 가히 내릴 수 있다.”⁵⁹⁾라고 하여, 淡味の 陰의인 측면을 부각시켰

다. 朱丹溪는 淡味가 相火의 妄動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고, 『格致餘論·相火論』에서 “어째서 東垣은 相火를 元氣의 賊으로 삼았는가? 또한 말하기를, 火는 元氣와 더불어 兩立하지 못한다. 하나가 이기게 되면 하나는 진다.”⁶⁰⁾라고 한 것으로 보아 相火의 妄動이 억제되면 元氣가 길러져 淡味는 2차적으로 元氣를 도와 陽的인 측면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黃帝內經』에서 말한 淡味の 滲泄 작용은 陽的인 작용으로 땀을 잘 스며나가게 하고, 小便을 잘 나가게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津液이 잘 선포되고 유통되게 만들어 진액 대사를 돕기에 陰的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氣와 津液의 相生 관계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에서 “옛날에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陽 가운데서 陰이 생기고, 陰 가운데서 陽이 생긴다. 氣 가운데서 液이 생기고, 液 가운데서 氣가 생긴다.”라고 하였으므로⁶¹⁾, 氣機의 運行은 津液을 잘 생성되게 돕고, 津液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元氣가 잘 생성되게 도와 氣와 津液이 모두 풍성해지므로 淡味는 陰的인 측면과 陽的인 측면을 모두 지니게 된다.

淡味를 지닌 15개 약물의 효능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通氣下乳시켜서 乳汗不下를 치료하거나 健脾寧心시켜서 脾虛食少와 便溏泄瀉를 치료하거나 寬中下氣시키는 것은 氣化와 관련이 되므로 주로 淡味の 陽의 속성과 연관이 되고, 清心火하고 利小便하여 小便赤澀이나 尿少澀痛을 치료하는 것은 津液이 충족되고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며, 水腫癰閉와 熱淋·石淋 등의 각종 淋證을 利水시키는 것도 氣를 잘 돌려서 津液을 잘 돌아가게 하여 결과적으로 진액이 충족되어 癰閉나 淋證이 치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淡味滲泄爲陽.”이라고 하였는데, 滲泄 중 滲은 發汗과 관련이

55) 周學海 著, 閻志安 校注. 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64-65. “三焦者, 水所行之道, 非水所藏之府也. 汗與小便, 俱由三焦經過, 故汗多則小便少者, 水在三焦, 即爲熱氣蒸動, 泄於膜外, 達於皮膚, 而不待傳入膀胱也. 非既入膀胱, 復外出而爲汗也. …中略…; 其曰水曰津液云者, 水在三焦, 氣味清淡, 猶是本質, 發而爲汗則味鹹, 傳爲小便則氣腥, 是已受變於人氣矣, 故皆可以津液名之. 非汗爲膀胱之津液, 小便爲三焦之水也. 乃汗與小便皆三焦之水, 而外支出者也.”

5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社. 1985. p.304.

57) 朱震亨 著, 毛俊同 點注. 格致餘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p.60-61. “彼粳米甘而淡者, 土之德也, 物之屬陰而最補者也.”

58) 朱震亨 著, 毛俊同 點注. 格致餘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p.2-5. “古人於夏必獨宿而淡味, 兢兢業業於愛護也, 保養金水二臟, 正嫌火土之旺爾.”

59) 朱震亨 著, 毛俊同 點注. 格致餘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

出版社. 1985. p.47. “燥熱已多, 血傷亦深, 須淡食以養胃, 內觀以養神, 則水可生, 而火可降.”

60) 朱震亨 著, 毛俊同 點注. 格致餘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56. “何東垣以爲元氣之賊. 又曰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61) 許浚 著. 東醫文獻研究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359. “古聖曰, 陽中生陰, 陰中生陽, 氣中生液, 液中生氣. 又曰, 積液生氣, 積氣生液.”

있고 泄는 利小便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淡味の 滲泄 작용에 대해 李時珍은 보통 上焦 쪽으로 상승한 뒤에 다시 하강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며, 이는 곧바로 下焦에 작용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본 淡味 논설 중에 滯石과 枸杞子의 설명에서 三焦를 云云하였고, 知母와 槲木의 설명에서 소변이 막히고 갈증이 겸한 경우 淸肺金하여 水의 化源을 보태줘야 한다고 하였으며, 澤瀉의 설명에서 滲濕하면 熱도 빠져 나가 淸氣가 상행하여 귀와 눈이 밝아지고 氣力을 더한다고 하였고, 茯苓의 說明에서 淡滲한 약물들이 모두 上行한 뒤에 下降하는 것이지 곧장 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氣化가 잘되고 津液도 충족되었을 때 땀도 잘 나가고 소화도 잘 되며 소변도 滑利하게 잘 보는 등 三焦의 氣液 代謝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⁶²⁾

또한 李時珍이 『本草綱目』에서 淡味를 설명할 때 먼저 上升한 뒤에 下降한다고 하고, 먼저 發汗을 한 뒤에 利小便한다고 한 논설은 후대 『本經疏證』이나 『本草思辨錄』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들 서적에서도 淡味の 특징에 대하여 먼저 반드시 上升한 뒤에 下降한다고 하였다. 이는 『素問·經脈別論』에 나온 것과 같이 진액 대사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따라서 먼저 上焦인 肺쪽으로 상승했다가 通調水道하여 下焦인 膀胱쪽으로 下降함으로써 水精이 사방으로 퍼지고 五經이 并行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淡味를 써서 三焦의 氣液 代謝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朱丹溪가 淡味를 補陰한다고 보아서 陰과 연관시켰으나, 2차적으로 元氣의 생성을 도우므로 陽과도 관련되고, 『黃帝內經』에서 “淡味滲泄爲陽.”이라고 하여 淡味가 가진 滲泄의 작용은 陽의인 작용으로 땀을 잘 나가게 하고, 小便

을 잘 나가게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津液이 잘 선포되고 유통되게 만들어 진액 대사를 돕기에 陰의 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淡味는 陰陽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이를 三焦와 관련시켜서 이해하면 淡味가 지닌 陰陽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淡味가 甘味에 가깝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 살펴본 15개의 淡味 약물 중에서 다른 五味가 붙지 않고 淡味로만 표기된 것은 白羊石 하나였고, 苦味를 지녀 苦淡으로 표기된 것은 象肉 하나였으며, 竹葉은 기본적으로 辛苦하지만, 어떤 판본에서는 甘淡하다고 했고, 나머지 12개의 약물은 모두 淡味를 甘味에 붙여서 甘淡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淡味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항상 甘味와 함께 붙여서 쓰게 된다. 淡味를 甘味에 붙여서 본다는[淡附于甘] 말은 『本草綱目·神農本草經名例』에서 王好古를 인용한 부분에 나온다. “본초 五味에서 淡味를 말하지 않았고, 四氣에서 涼을 말하지 않았으며, 다만 溫、大溫、熱、大熱、寒、大寒、微寒、平、小毒、大毒、有毒、無毒을 말한 것은 어찌서인가. 淡味는 甘味에 붙었고, 微寒은 곧 涼이다.”⁶³⁾라고 하였는데, 淡味를 甘味에 붙여서 말한 것은 淡味도 甘味와 비슷한 속성이 있음을 말한다. 淡味에 대하여 『靈樞·九鍼論』에서 “五味,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甘入脾, 鹹入腎, 淡入胃, 是謂五味.”⁶⁴⁾라고 하였는데, 甘味는 脾로 들어가고, 淡味는 胃로 들어가 모두 五行 중 토에 배속됨을 알 수 있다. 또한 『本經疏證』 石蜜에서는 “甘味는 조화를 받아들이고, 흰색은 채색을 받아들인다. 꿀은 달고 밀랍은 담담하고, 한 곳에서 빚었지만 달여서 분리하면 단맛은 단맛대로 담담한 것은 담담한 것대로 나뉘니, 꿀이 조화를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밀랍이 조화를 받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

62) 백유상, 김혜일, 김중현, 윤기령, 김상현, 박철한.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 三焦相火 病機와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187-202. “『黃帝內經』에서 언급한 三焦의 기능은 三焦가 단지 上中下의 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上焦, 中焦, 下焦가 각각 독특한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 氣血, 津液을 생성하고 선포하며 이에 따라 營衛를 운행시키고, 大小便을 만들어 내보내는 등 인체 생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3)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36. “好古曰: …中略…; 本草五味不言淡, 四氣不言涼, 只言溫、大溫、熱、大熱、寒、大寒、微寒、平、小毒、大毒、有毒、無毒, 何也. 淡附于甘, 微寒即涼也.”

6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332.

다. 여기에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절실하게 연구해야 한다. 『陰陽應象大論』에 ‘辛味와 甘味는 陽이고, 酸味와 苦味는 陰이며, 鹹味는 陰이고 淡味는 陽이다.’라고 하였다. 총괄해서 논하자면 甘味와 淡味는 모두 陽이고, 나눠서 말하자면 淡味는 陽이 甘味보다 勝하니, 이른바 흰색이 채색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⁶⁵⁾라고 하여 淡味와 甘味が 모두 中和의 속성을 지닐 수 있지만, 淡味가 陽의 성질이 더 勝하며, 흰색이 모든 채색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처럼 淡味도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淡味와 관련된 甘味는 『素問·藏氣法時論』에 나오는 “甘以緩之”⁶⁶⁾처럼 완화하는 작용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中央土의 속성을 띤 味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방을 융합하고 조화시키고 통합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淡味도 그 맛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자극적이거나 강하지 않아서 上中下 三焦 전체의 氣機를 소통시키기 때문에 淡味를 甘味와 유사하게 보아 甘味에 붙여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IV. 結論

이상에서 淡味의 陰陽 특성에 대하여 본초학 교과서와 『本草綱目』을 중심으로 淡味를 지닌 약물을 조사하여 그 氣味, 歸經, 效能主治 등을 검토하고, 여러 本草書의 淡味 관련 논설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淡味를 포함한 약물을 살펴본 결과 淡味는 보통 甘味를 붙여서 甘淡한 것이 다수였고, 그 氣는 대체로 차가웠으며, 그 효능은 清熱, 利水, 解毒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었다.

2. 淡味의 清熱利水解毒하는 공통된 효능은 淡味를 지닌 약물이 三焦의 氣機를 돌려서 땀이나 小便을 잘 나가게 해줌으로써 津液이 잘 선포되고 유통되게 하고, 원활한 진액 대사는 다시 元氣가 잘 생성되도록 도우므로 三焦의 氣液 대사와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3. 『本草綱目』을 중심으로 淡味에 대한 논설을 살펴본 결과 淡味를 陰中之陽이라고 하여 淡味가 陰陽의 두 측면이 있음을 말하였고, 淡味의 滲泄하는 작용에서 滲을 發汗으로, 泄을 利小便으로 보아, 상승한 뒤에 하강시키는 작용으로 氣機를 소통시키고 진액을 생성해 준다고 보았다.

4. 朱丹溪가 淡味를 補陰한다고 한 것은 相火의 제어와 연관되며, 相火의 제어는 2차적으로 元氣의 생성을 도와 陽의인 측면과도 관련되고, 『內經』의 “淡味滲泄爲陽.”은 淡味가 지닌 滲泄 작용이 陽의인 작용으로 땀을 잘 나가게 하고, 小便을 잘 나가게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津液이 잘 선포되고 유통되게 만들어 진액 대사를 돕기에 陰의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淡味는 陰陽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三焦와 관련시켜서 이해하면 淡味가 지닌 陰陽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5. 淡味를 단독으로 논하지 않고 甘味와 함께 붙여서 논의하는 것의 의미는 淡味가 甘味처럼 甘以緩之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방을 융합, 조화, 통합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中央土의 특성과 관련하여 淡味도 그 맛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자극적이거나 강하지 않고 上中下 三焦 전체의 氣機를 소통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Reference

1. 裘吉生. 本草思辨錄(珍本醫書集成2). 서울. 醫聖堂. 1994.
2. 金동희 외 17人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3. 김형주. 黃帝內經에 나타난五味에 관한研究.

65) 鄒澍潤安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 上. 大田. 주민출판사. 2012. pp.410-411. “第甘受和, 白受采, 蜜甘蠟淡, 釀於一處, 煉而別之, 則甘者自甘, 淡者自淡, 不知爲蜜不受和耳, 抑蠟不受和耶. 是誠有至理, 當切究也. 陰陽應象大論曰, 辛甘爲陽, 酸苦爲陰, 鹹爲陰, 淡爲陽. 統而論之, 則甘與淡皆陽. 析而言之, 則淡之陽勝於甘, 所謂白受采也.”

6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88.

-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4. 盧之頤 嚴參. 冷方南, 王齊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5. 李吉武, 陳文輝, 孟立鋒, 唐愛華, 李雙蕾. 《黃帝內經》“淡味滲泄爲陽”意涵及《傷寒論》方藥運用析義.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20. 26(03).
 6.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7.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下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8. 문영옥. 『黃帝內經』 中 五味에 對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9. 潘青雲, 單禱文, 吳嘉寶, 趙震. 淡味藥內涵析議及在兒科疾病中的運用.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21. 37(04).
<https://doi.org/10.13463/j.cnki.cczyy.2021.04.004>.
 10. 백유상. 五味와 三陰三陽의 關係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4).
 11. 백유상, 김도훈, 안진희. 劉河間의 養腎水 治法에 對한 考察 - 朱丹溪 補腎 治法과의 比較를 통하여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1. 34(3).
<https://doi.org/10.14369/jkmc.2021.34.3.021>
 12. 백유상, 김혜일, 김종현, 윤기령, 김상현, 박철한.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 三焦相火 病機와의 關係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https://doi.org/10.14369/skmc.2016.29.2.187>
 13. 신상원.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對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4. 전국한외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15.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0.
 16. 朱震亨 著, 毛俊同 點注. 格致餘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17. 周學海 著, 閻志安 校注. 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8. 최동현. 三焦와 元氣, 津液에 對한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9. 鄒澗潤安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 上. 大田. 주민출판사. 2012.
 20. 許浚 著. 東醫文獻研究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2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2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